



음악적 공감에 대한 새로운 시도, <EBS 스페이스 공감>

채선유

방송이란 매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가.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의의는 단지 정보 전달 기능에만 있지 않다. TV는 더 이상 혼자 말하는 바보상자가 아니며, 시청자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소통을 하고자 한다. 피상적 정보의 방송이라기보다 경험하고자 하는 사실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이 역할을 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방송의 취지에 맞춘 ‘공감’이란 프로그램이 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짜 이름은 ‘space 공감’, 즉 공간의 공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은 음악이 주가 되어 공연 예술이 펼쳐지는 무대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뮤지션과 관객이 공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시청자가 느끼는 공감으로까지 확대되는 무대는 프로그램의 제목과도 잘 어울린다.

<EBS 스페이스 공감>(이하 <스페이스 공감>)은 얼마 전 공연 1,000회를 넘겼다. 웬만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이를 기념해 <스페이스 공감>은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의 주제를 명확히 하려는 듯, 4월 한

달간 언플러그드 공연을 기획했다. 젊은 기타리스트인 최우준을 시작으로 핑키락의 대표인 노브레인, 새로운 록의 감성을 불러일으킨 피아, 다양한 활동과 함께 싱어 송 라이터의 입지를 지키는 박기영, 전자음악의 대표이자 현대음악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한상원 초기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했던 산울림 김창완까지. 평소 각기 다른 음악을 선보이던 뮤지션들이 언플러그드라는 동일한 테마 아래 선보인 무대는 새로운 시도가 어색할 것이라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렸다. 또한 이러한 테마 공연은 지금껏 공연과 동시에 방송을 이끌어온 <스페이스 공감>의 취지를 잘 나타냈다. ‘그곳에 가면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화면에 뜨는 글귀다. 라이브 중심의 음악을 위한 공연. 음악 프로그램으로써 이 방송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지 이러한 점 때문만은 아니다.

요즘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주제 하에 진짜 음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진짜’ 음악은 방송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나마 <스페이스 공감>과 함께 음악 중심으로 방송을 해오던 <수요 예술 무대>조차도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밀려 종영을 하게 되었다.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음악 전문 케이블 채널까지 뮤지션과 관객을 뒤로 한 채 누구를 위한 무대인지 짐작할 수 없는 여타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음악에 대한 수요는 비교적 많지만, 뮤지션들의 음악의 활동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고,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음악은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음악에 대한 성찰이 있다면 음악 프로그램이 오로지 연예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진행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조심스레 던져본다.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스페이스 공감>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진짜’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음악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을 하위 장르로 나눈다면 그 갈래의 수가 매우 많다. 심지어 세부적인 장르는 만들어내기 나름일 정도이다. 그런데 <스페이스 공감>은 이러한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굉장히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시도를 한다. 국내 대중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클래식이나 국악과의 퓨전, 재즈는 물론이고, 지나간 한국 가요를 재해석하는가 하면, 소수의 뮤지션들이 시도하는 생소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는 단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월드 뮤직과 국외 뮤지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내가 기억에 남는 공연은 우리나라 재즈 1세대 타악기의 거장 류복성의 공연이었다. 그날의 공연은 빅밴드 멤버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즈음악으로 활동하는 뮤지션들, 거기에 댄서까지 더해져 유난히 무대가 꽉 차보였다. 무대의 열기는 얼마나 뜨거웠을까. 좀처럼 라이브로 듣기 힘든 진득한 재즈선율은 소극장을 채우기에 넘치는 듯했다. 멤버 간 세대를 넘어선 재즈는 타악기를 중심으로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공연은 음악적 장르의 다양성을 물론, 세대의 차이까지 아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나로서는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특히 외국 뮤지션의 초청에서 기타리스트이자 재즈보컬을 겸하는 존 피자렐리의 공연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멋진 공연으로 손꼽는 것이기도 했다. 음반으로만 들어왔던 경쾌함은 공연으로 볼 때 또 다른 느낌을 주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은 특히 외국 뮤지션 초청에 있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재즈팝이나 포크스타일의 비교적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선보인다. 월드뮤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감성을 깨우는 따뜻한 음악은 대중을 고려한 동시에, 기존의 국내

가요와 미국 팝 문화에만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기도 한다.

<스페이스 공감>의 색다른 시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존 뮤지션들의 공연을 기획하는 것 이외에 ‘헬로 쿠키’라는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과정에도 주력한다. 이는 보다 많은 뮤지션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또한 특정 신인 뮤지션들에게 최대의 록 페스티벌인 펜타포트 무대에 설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를 계기로 록 밴드 마리서사는 ‘헬로 쿠키’를 거쳐 메이저 무대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음반을 내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로스라는 밴드 또한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 쿠키’에 선정되어 그들만의 음악에 대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재즈나 록, 포크 스타일의 음악이 아니지만,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그들의 시도는 현재 다른 무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 달에 3팀씩 신인을 발굴하는 ‘헬로 쿠키’는 공연할 무대가 필요한, 음악을 하고 싶은 뮤지션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 난해할 정도까지의 음악은 선보이지 않는다. 실험음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보장하는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음악이 장르의 색깔에 빠지는 것보다 뮤지션의 색깔을 입히는 것에 주력한다. 물론 관객과 ‘공감’하려는 의도를 참작하면, 음악이 대중에게 난해하게 비쳐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음악적 특색의 깊은 면을 선보일 수 없다는 점은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다.

또 한 가지 방송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공연의 구성이 병렬식 구성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공연 관람객’보다 ‘방송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하다.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공연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 공연을 TV로 관람하려는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긴장과 흥분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아쉬운 듯한 측면은 전반적인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관객과 보다 깊은 소통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스페이스 공감> PD의 인터뷰를 보았다. 이때 PD는 초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매일 공연’과 ‘라이브’, 그리고 ‘현재’의 음악을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매일’과 ‘라이브’는 공연 문화의 생활화로 이어지고, ‘현재’의 음악이란 단지 과거 명성에만 얽매이지 않고 현대 흐름에 맞춘 음악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연예술로서의 음악의 사회성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뮤지션들의 나아갈 방향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지속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시도를 하는 <스페이스 공감>은 특히 음악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대중의 수준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공연 문화와 음악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다. 방송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대에서나마 뮤지션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표현을 관객이 받아들이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이끌어내는 <스페이스 공감>. 무엇보다 공연 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방송’이 다음에는 또 어떤 ‘공간’을 마련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된다.